

성도의 빛12

197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 : 14, 16)



경전에서 답을 찾자

해럴드 비리 대관장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 그러나 그때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최근에 교회에서 자란 어느 자매가 아담 이전의 사람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신앙적인 기초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아담 이전의 사람이라니?”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글쎄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땅 위에 첫 육신 곧 첫사람이 되었더라...”(모세서 3:7)라는 성구를 잊은 모양이로군”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나?”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자의 학설을 읽고 창조에 관해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과학과 종교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오류를 범했다면 진실과 오류를 일치시킬 수는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은 신전 의식과 관련해서 경전의 가르침과 과학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합니다. 그 대답으로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복천년이 시작된다고 하신 위대한 사건에 관해 1833년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종종 들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께서 모든 일을 드러내시리니,

“곧 지난 날의 일이나,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감추인 일이나, 피조된 이 세상 일과 그 목적과 종말을 드러내리라.

“가장 귀한 일이나, 하늘 위의 일이나 하늘 아래의 일과 세상의 일과 땅

위의 일과 하늘의 일을 드러내리라.”(교리와 성약 101 : 32-34)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실 때 당신과 내가 그 곳에 있다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지상에 있게 되었는지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갖는 것은 경전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과 안정뿐이며, 우리는 신앙으로 나머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젊은 이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열의를 가지고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논리를 채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연구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여기에는 특별히 해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을 때이며, 이때 연구자는 옳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심각한 위험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테저렛 출판사, 1939년] 38페이지)

몇년 전에 나는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인 헨리 아이링 박사가 맡은 공과 시간에 참여해서 그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링 박사님,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건 마치 8살 난 어린이에게 원자력의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8살 난 어린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아이링 박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저서에서 썼습니다. “나는 ‘아이링 박사님 과학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계시 종교를 받아 들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대답은 간단하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과학에 적용되는 똑같은 실용적인 시험이 종교에도 적용된다.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되지 않는가?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의 운행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가 인간과 세상의 가장 놀라운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추론이 없다면 생각하기 어렵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으므로 그가 인간의 발전과 복리를 위해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다.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복음이란 참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그의 자녀를 잘 인도하여 그에게 데려가기 위해 고안해 낸 계획인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해서 그는 합당한 그의 아들 중에서 그의 자녀를 이끌도록 예언자를 택하셨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귀담아 듣고자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고하는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에 의해 권장되고 있다.”(한 과학자의 신앙 [북크래프트사, 1967년] 103-104 페이지)

몇년 전에 스웨덴 선교부장은 배를 타고 핀랜드를 향해 갈 때 여러 섬을 지나면서 갖은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을 때 그는 여러 섬 가운데 있는 꼬불 꼬불한 수로를 따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장이 왜 배를 이 멋없는 섬쪽으로 몰아서 저 아름다운 섬을 보지 못하게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앉아 방향을 지켜 보고 꼼꼼히 생각하고 있을 때 앞에서 빛자루 같은 것이 불쑥 불쑥 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누가 그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수로를 알아내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진리와 허위를 측정할 수 있는 방편을 표준 경전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나타내 보여 주었으며, 그 안전한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 이것은 우리의 배가 위험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인도해 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권고를 따라 악한 길을 걷지 않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밝혀주신 바에 만족하고 주님이 밝혀주신 바를 신앙으로 받아 들이도록 가족에게 가르친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명한 철학 협회의 한 간사는 이 시대에 영감이 결여된 것을 개탄하면서 지금을 “영감받지 못하는 자가 다스리는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줄만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술의 영역에서도 현대 미술의 기묘한 경향, 현대 조각의 해괴한 모습, 현대 음악의 불협화음, 현대 시의 난이도 등이 이 시대가 영감이 결여된 시대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 종교가 교리를 자꾸 만들어 이에 영합하거나 혹은 영적인 면보다는 의례주의에 만족해 버리므로 똑같은 사실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사람은 오늘날 필요한 영감의 원천인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책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모호하고 그늘에 가린 인격체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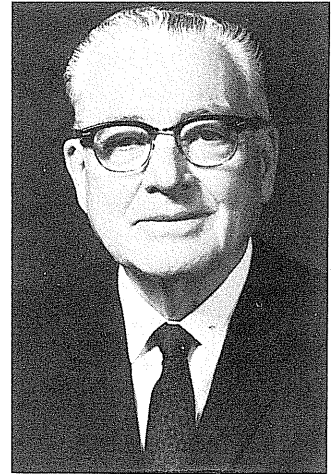
통치자나 백성이 필요한 영감을 다시 받게 되려면 최근의 발견과 예언의 성취로써 온전히 확립된 진리인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인간의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만사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기록한 마음으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나는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기 바라노라. 그리하여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껀임을 받지 않게 하라. 어떤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악마로부터 나온 것도 있는 연고니라.”(교성 4:7)

나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경전에서 답을 찾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바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교리상의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질문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전에 있는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는 경전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며, 따라서 경전에서 찾아야 마땅할 답을 추측해 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오늘날의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으레히 신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마다 나는 다음 말을 하고는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표준 경전이나 역대 대관장님의 엄숙한 선언문에서 답을 찾지 않고는 여러분의 질문에 감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표준 경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가 받은 바, 경전 중에 율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율법으로 삼을지니라”(교성 42:59) 



Harold B. Lee

산상수훈

데이비드 에이치 얀 2세

브리감 영 대학

철학 교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매우 높이 평가하나 그것은 지금까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산상수훈은 실제로 행해진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주제가 너무나 자주 바뀌므로 실제의 설교라고는 볼 수 없고 윤리적인 말을 한데 수집해 놓은 것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나 물론경은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이 설교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증거해 준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서 신약 전서에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것과 똑같은 놀라운 설교

를 하신 점에서 알 수 있다.

더우기 회복된 복음은 왜 그 설교가 윤리적인 단편을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설명이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요약해 보면 산상수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5:1-12, 주님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진복팔단을 말씀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광범위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5:13-16,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의 책임을 밝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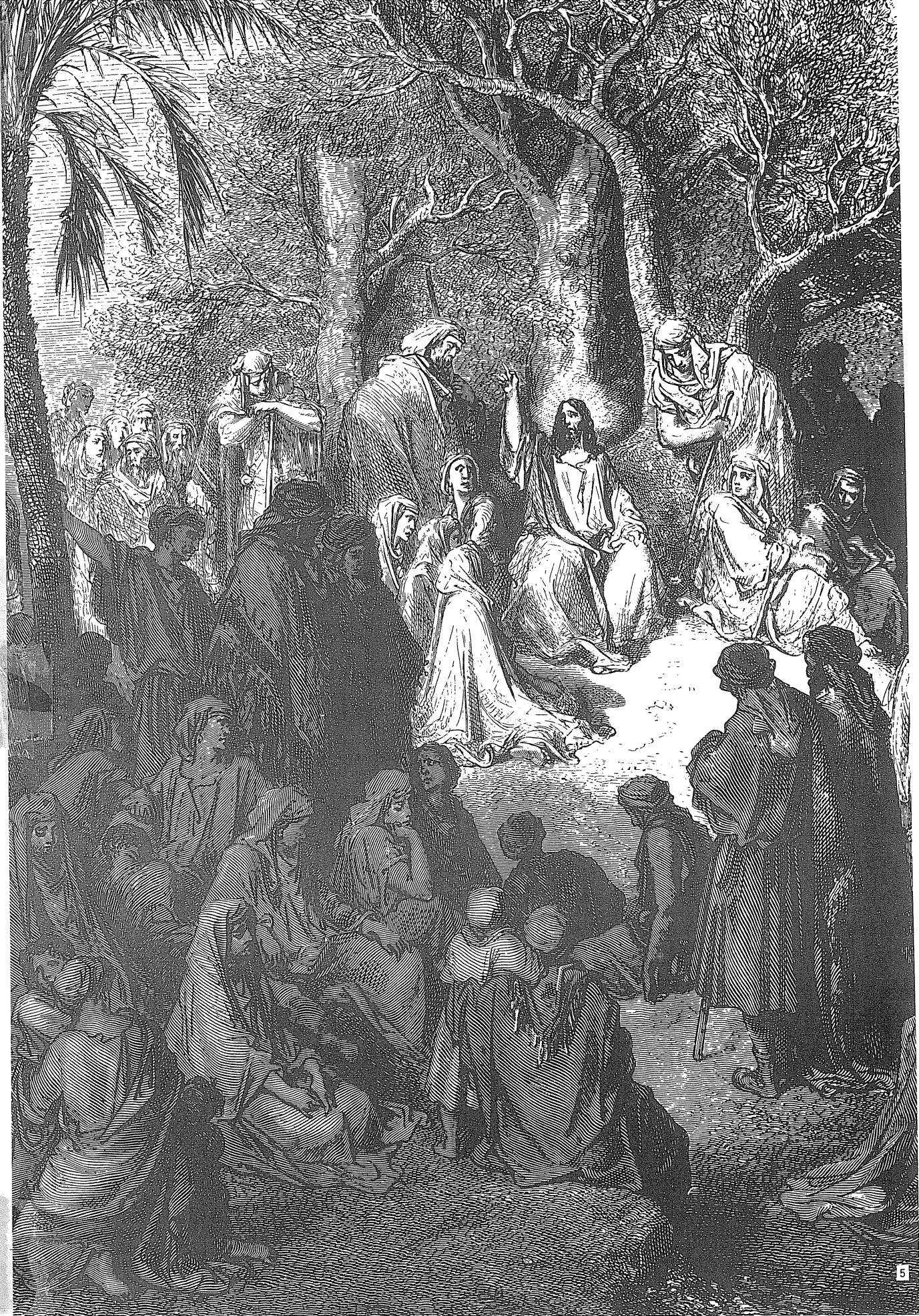
마태복음 5:17-20, 주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 오시지 않았고 이를 성취하려 오셨다고 하셨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21-6:34,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7:1-23, 주님께서서는 여섯 가지의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권고와 경고의 원리를 두셨다.

마태복음 7:24-29, 주님께서서는 듣는 자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지시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중요한 선언을 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살펴보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전 설교의 중심되는 내용이다. 물론경에서 아빈아다이는 모세의 율법이 완고한 이스라엘 자녀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었다. (야 4:4-5) 그는 또한 구세주의 구속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리라”(모 13:28)고 가르쳤다.

부활하신 구세주가 니파이인에게 그의 위대한 설교를 행한 후에 그들 중의 몇명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보라 내가 율법을 내려 준 자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 그리하여 율법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니,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다. 율법의 때는 끝났도다.”(니파이삼서 15:4-5)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준 것은 자기였고 자기로 인하여 율법이 이루어졌고 끝이 났다고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선언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통일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희생을 하러 왔다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인간

에게 더 많은 모범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를 설명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의 추종자에게 설교를 했지 불신양자나 게으르고 의심있는 군중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산상수훈의 통일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처음부터 마태는 주님께서 군중을 보고 산에 오르셨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은 이 점을 분명히 해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나의 존재를 증거할 때 이를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나니라.”

“너희 말을 믿고 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과 성신의 방문을 받고 죄 사함을 얻을 것임이라”(마태복음 영감역 5:3-4)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윤리적인 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를 믿을 것을 촉구하였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마 5:13)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마 5:14)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위대한 칭호가 붙은 것으로도 이

말씀이 제자에게만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되고 뵈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되는 자기의 제자들을 제쳐놓고 과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겠는가?

일단 우리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대신한 복음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이 갖는 통일성을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관계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진부한 사람들의 무리로만 볼 수는 없다. (확실히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나 성령의 약속은 윤리적인 문제 이상의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간은 주님의 가르침의 윤리적인 차원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간증에 기초를 둔 기본적이고 실질적이며 신학적인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교에 관한 기초를 놓았으며

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외적인 준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다. 그들은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만 했다.

행위를 인정받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합당한 행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자연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인정된 행위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요일 3:14) 사람에게서 보이는 영적인 거듭남의 결과로 생기는 부속물인 것이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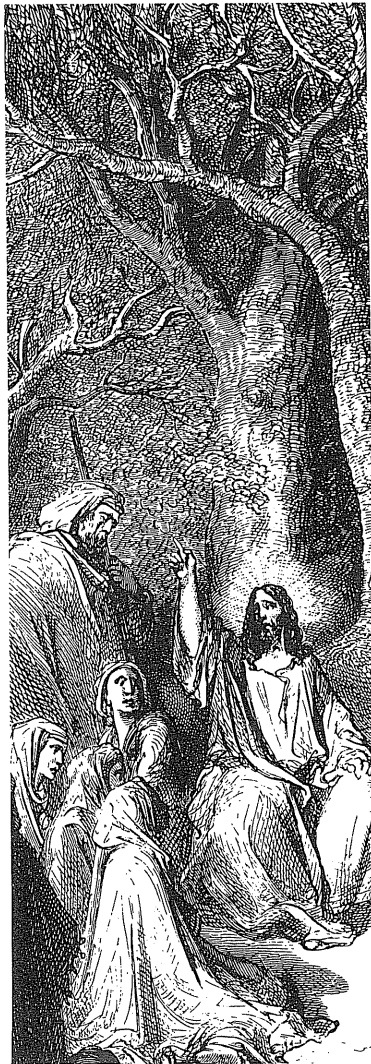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 5:21, 니삼 12:21 참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니삼 12:27-28 참조)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마 5:33-37, 니삼 12:33-37 참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려 때며”(마 5:38-39, 니삼 12:38~39)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 니삼 12:43-44)

이 성구가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복음은 선행뿐만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요구하며 깨끗한 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내용은 조금 다르나 복음의 고차적인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 구제함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마 6:1-4, 니삼 13:1-4 참조)

·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마 6:5-15, 니삼 13:5-15 참조)

· 금식의 기색을 나타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보이라.(마 6:19-18, 니삼 13:16-18 참조)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주님께서서는 처음에 보면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 듯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것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것임을 알 수 있

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 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19-23, 니삼 13 : 19-23)

여기서 주님께서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구별하셨다. 이러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흐르는 주요한 명맥이다.

마태복음 6장 24-34절까지의 내용을 현대의 비평가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25절이 비평의 초점이 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비평가들은 이러한 권고가 전적으로 터무니 없다고 본다. 그들은 말로는 사람들이 이에 따르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감역이나 물문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친히 택하신 열둘을 바라보시며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라. 보라 너희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려 내가 택한 자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니파이삼서 13 : 25)

이 설교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므로 이 특별한 권고도 그리스도의 열두 특별증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말라는 말은 아니다.

설교의 세번째이며 마지막 주요 부분이 되는 마태복음 7장은 권고와 경고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 : 1-2, 니삼 14 : 1-2 참조)

2.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

하라”(마 7 : 6, 니삼 14 : 6 참조)

3.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7, 11-12, 니삼 14 : 7, 11-12 참조)

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 7 : 13, 니삼 14 : 13 참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경고의 구절은 짧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인용한 말의 요지이다. 좁다는 말에 뜻이 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신 문은 힘이 드는 문이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의 복음이 손쉬운 일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고 힘이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셨음에 틀림 없다.

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 : 15, 니삼 14 : 15 참조) 주님께서는 이 권고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표준을 나타내 주셨다.

교리와 성약의 예언과 약속

로드니 터너

브리감 영 대학

교회사 및 교리 담당 교수

교

리와 성약은 전편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이는 진리 속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때는 그가 한 진리의 말이 아무리 간단하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게 하며 말이나 이성을 초월하게 된다.

(교성 50 : 21-22, 68 : 6-7참조)

이러한 힘은 모든 성스러운 계시 속에 깃들어 있는 영이며, 윌리엄 몰레른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와 같은 계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도 흉내낼 수 없었던 영이다. (교성 67 : 5-7 참조)

성신의 권세는 종종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어 아름다움과 상상력이 충만한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한다. 교리와 성약의 여러 페이지에 흠어져 있는 주옥과 같은 다음 구절들을 생각해 보라.

지구의 웅대함에 관해서
지구는 제 길을 운행하며,
해는 낮에 빛을 발하며
달은 밤에 그 빛을 내고
별들도 제 빛을 내나니,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제각기 자기 영광 중에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도다.

—교리와 성약 88 : 45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또 이같은 말을 들으리니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오신 이 분은 누구시뇨? 참으로 영화로운 옷차림으로 크신 능

“이러므로 그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마 7 : 20, 니삼 14 : 20 참조)

6. 설교의 본론을 여기서 마치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모든 이야기를 마쳤다. 첫번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간증에 기초를 둔 설교의 주제로 되돌아 간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 : 21-23, 니파이삼서 14 : 21-23)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셨고 그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종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자에게 자비롭게 용서를 베푸셨으니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신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는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위대한 설교를 마치셨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바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휘몰아 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실행하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 바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만다.

분명히 말해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명에 굳게 기초를 둔 설교이다. 여기에는 그의 이름을 받들다가 오는 어떠한 고통이나 박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제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 등이 밝혀지고 있다.

그가 메시야가 된다는 사실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의 심판자로 삼으셨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 영생을 얻도록 하라고 권유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마 7 : 28-29)라고 한 것은 이상한 것이 없다 하겠다. ㉔

력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시는 이는 누구시뇨?

—교리와 성약 133 : 46

지구를 옹호함
땅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으나
그 힘을 내었고
진리는 대지에 확립되었고,
하늘은 땅을 향하여 미소 지으며,
땅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계심이라.

—교리와 성약 84 : 101

이러한 구절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이것은 또한 그가 불과 성신의 칭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데 이는 그가 “천사의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다. (나이 3 : 13, 32 : 2 참조)

교리와 성약은 현대에 이루어진 유일한 표준 경전이다. 얼핏 보아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연 관성이 없는 계시를 나열한 듯이 보일 지도 모르나 일반 종교사라는 실 위에 꿰어진 진주와도 같은 것이다. 대배도의 광야 속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교성 1 : 30)와 악을 물리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지구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승영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기막힌 역사인 것이다. (교성 76 : 106-108, 88 : 14-29, 130 : 6-9 참조)

그러므로 교리와 성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울레에 울레를 더하고, 계울에 계울을 더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교훈을 주며 장차 임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희망을 굳게한”(교성 128 : 21) 거룩한 하늘 사자의 노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서는 미래의 사건을 밝혀 줌으로써 우리의 희망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

시의 문제나 즉시 관심을 요하는 문제, 우리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현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천년의 왕궁이 도래함을 증거하게 될 세대에게 방향을 잡은 것이므로 하는 수 없이 빛에 관하여는 물론 암흑에 관하여도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준다.

교리와 성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이 말일에 관한 것을 과장하여 예언하고 있다(교성 45 : 42, 64 : 24)고 믿는 사람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교리와 성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계가 주어졌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7-38)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과도 같이 선하신 분이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겸손하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하려”(교성 136 : 33) 하시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은 예수께서 기도하였고 거룩한 자들이 오래 전부터 간구해 오던 “의의 날이” 도래함을 증거해 주는 부천년의 새벽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놀랍고 영적인 암흑이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였다. (교성 45 : 12-14)

인간 가족을 갈라 놓은 선과 악 사이의 틈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이것은 1831년에 주어진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 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

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되며...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교성 1 : 35-36)

인간은 희미한 거울로 이 세상을 보나 주님께서는 진리를 탐구하는 눈으로 보신다.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는 세상 사람의 의견과는 달리 현대 계시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고 말해 준다.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는 썩었음이라. 암흑의 권세가 인간 자녀 가운데 있어 모든 천군 앞에서 땅을 뒤덮느니라.

“이로써 세상이 잠잠해 지고 모든 영원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천사들이 가라지를 모아 태워버리려고 세상을 추수하라는 큰 명령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보라 원수들은 뭉쳤도다.”(교리와 성약 38 : 11-12)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대”(교성 33 : 2, 34 : 6)에게 “회개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교성 6 : 9, 11 : 9, 18 : 6, 19 : 21) 책임이 있다. 1830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나의 포도원은 날날이 썩어서 몇을 제외하고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많은 경우 에 있어서 성직 매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썩은 마음을 지니고 있도다.”(교성 33 : 4)

그러나 일년 후인 1831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땅의 주민을 향하여 불 붙듯 하시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이니라”(교성 82 : 6)고 밝혀 주셨다.

분명히 말해서 주님께서는 타협하실 줄 모른다.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프로그램을 낳아 주는 모든 선량한 의도도 인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구세주에게로 돌아 가지 않으면 죄나 악의 상태에 묶여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처하여 흑암과 죄의 사슬 아래서 신음하나니,



“이로써 저들이 내게로 나아오지 아니함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연고니라 또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알아 듣지 못하며 또 나의 것이 아니니라 또 이로써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여 알 수 있으며 온 세상이 지금도 죄와 흑암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84 : 49-53)

불행하게도 경전이나 역사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자는 많으나 생명으로 들어 가는 자는 적다고 말해 준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신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생명과 평강의 영인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기”(교성 1 : 33)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주님의 시적인 호소력에 귀를 기울여 보자.

“땅의 국민들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기 그 몇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종의 입으로, 천사들의 성역으로, 내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소리로, 번개 소리로, 폭풍우 소리로, 지진과 큰 우박 소리로, 기근과 각종 질병의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심판의 소리로, 온 종일 자비의 소리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재물의 소리로 불러서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너희는 응하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43 : 24-25)

큰 심판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교성 45 : 32) 그러나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 심판이란 자신이 저지

른 행위에 대한 응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성 109 : 49-53, 84 : 96-98, 97 : 22-25참조) 주님의 계획은 생명의 계획이다. 멸망이 그 계획의 성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반항적인 자녀가 보인 행위 때문에 불행하지만 할 수 없이 그에게 부여되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은 말일의 환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경전이므로 의로운 자나 단체에게 올 큰 약속과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교회도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교성 1 : 30) 일으켜 세워졌다. 말하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였으니, 이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단 2 : 44) 다니엘이 본 왕국ियो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온 세상을 가득 채울”(교성 65 : 2) 왕국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다시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교성 38 : 9)

주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저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되며 나는 저들의 방패가 되어 저들의 허리를 동여 매어 주리라”(교성 35 : 14)고 약속하셨다. 이는 내가 “나의 선민을 세계의 사방에서 모을”(교성 33 : 6) 것이기 때문이다.

“레이맨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교성 49 : 24)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요”(교성 35 : 25)

새 예루살렘은 말일의 심판 동안 “평화의 땅, 피난의 도시, 성도의 안전한 장소”(교성 45 : 66)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은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영하리라”(교성 35 : 24, 64 : 41, 100 : 13, 101 : 17-20)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교성 97 : 21)가 될 것인데 이는 성도들이 “내가 정결한 것 같이 저들도 정결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교성 35 : 21, 67 : 10-13, 100 : 16)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의 신전에 오며(교성 36 : 8)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교성 29 : 11, 84 : 119)

주님께서 복천년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그리스도 외에는 통치자가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 왕이 되어 너희를 돌볼 것”(교성 38 : 21)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때 성도들은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나의 율법 외에는 아무 율법도 갖지 아니하리라”(교성 38 : 22)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한 자가 되리라”(교성 38 : 39)는 약속을 주셨다. 그들은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 받을 것이며(교성 38 : 9, 15, 78 : 13, 82 : 2-3, 136 : 41)영원히 그 땅 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교성 38 : 20) 지구가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되면 모든 주민에게 축복이 될 힘을 내게 될 것이다. (교성 59 : 16-20)

성실한 자는 부활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왕관을 쓰게 될 것이며(교성 29 : 13, 88 : 28-29) “충만한 진리”(교성 93 : 26-28)를 받게 되고 따라서 충만한 기쁨도 받으며(교성 93 : 33) “하나님을 알게”(교성 88 : 49)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교성 6 : 13, 14 : 7)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그가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의 성실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여하실 것이다. (교성 84 : 38)

결국 말일성도는 영원히 장자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회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교성 76 : 54-70, 78 : 21, 93 : 22)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게”될 것이다. (교성 78 : 22)

주님께서 박해받던 모든 세대의 백

성을 구하고(교성 133 : 52) 떨어진 혹은 성을 해의 영광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부활시킨 후에(교성 29 : 23, 88 : 17-19) 성도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주앞에서 상속의 땅을 받으리라”(교성 63 : 49)그 상속은 신회의 세 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그들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결혼, 완전한 가족을 의미한다. 그것은 완전한 지식, 권세, 주권, 자유, 기쁨을 포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확신을 심어 주셨다. “일찍이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교성 88 : 83) 그는 우리가 그에 가까이 갈 때 그도 우리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하셨다. (교성 88 : 63)

이러한 권고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교성 121 : 26)를 받게 되며,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때 모든 지식과 진리로 이끌며 이미 끊임 없는 동반자가 되게 한다. (교성 121 : 29)

성신의 은사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단이 된다.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나니, 이같이 나를 영접할 자마다 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리라”(교성 39 : 4, 11 : 30, 35 : 2, 45 : 8)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며(교성 46 : 28-30, 50 : 29-30, 98 : 1-3), 믿음에 따른 표적이 주어질 것이며(교성 35 : 8-9, 84 : 65-72), 영의 은사와(교성 46 : 8-27),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건강을 받을 것이며(교성 89 : 18-21)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게”(교성 59 : 23)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교리와 성약은 얼마나 값진 예언과 약속인가! 이 값진 현대의 경전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른다. ㉔

예언자 요셉 : 자화상

루이스 테일러



회복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굴의 정신과, 충성이 첫째이며 항상 자기를 향한 자신에 차고 두려움 없는 품성의 소유자가 필요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언자였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한 오른 손이 된 사람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한다. 그를 보다 잘 알기 위해서는 그의 눈을 통해 본 자신을 보는 것 만큼 더 잘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전권 3200페이지에 달하는 교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면모를 그대로 들여내 보이고 있다. 그는 말이나 기록에서도 놀라우리만치 솔직하였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마음 속의 느낌을 나타냈고, 때로는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 여기에 실린 자서전적인 기사를 통해 우리는 패기에 넘치는 그의 성품과 영을 느낄 수 있다.

위대한 독일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메이어는 언젠가 요셉 스미스와 모하멧드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는 모하멧드가 종교관을 확립함에 있어 자아 의심, 모호성, 불안 등의 시련을 경험한 반면, 요셉 스미스는 그러한 절망적인 투쟁의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모하멧드를 요셉보다는 높이 평가했다. 예언자는 종교적인 선언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았다. 자신의 평생의 사명에 관해 그가 말한 것을 살펴보자.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¹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위대한 사업과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분산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 그의 뜻을 증거합니다...”²

“내가 예언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부정할 하지 않을 것인데, 부정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³

자신이 누구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강력하게 “권능을 지닌 자”⁴ 로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며 나의 사명과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⁵

“내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지배하는 힘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마음 속에서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로서 교리에 입각한 진리의 권능에서 나온 것으로...나는 광야에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인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⁶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온갖 세상의 시도를 거부합니다. 나는 어떠한 자도 나의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나는 죽을 작오가 되어 있습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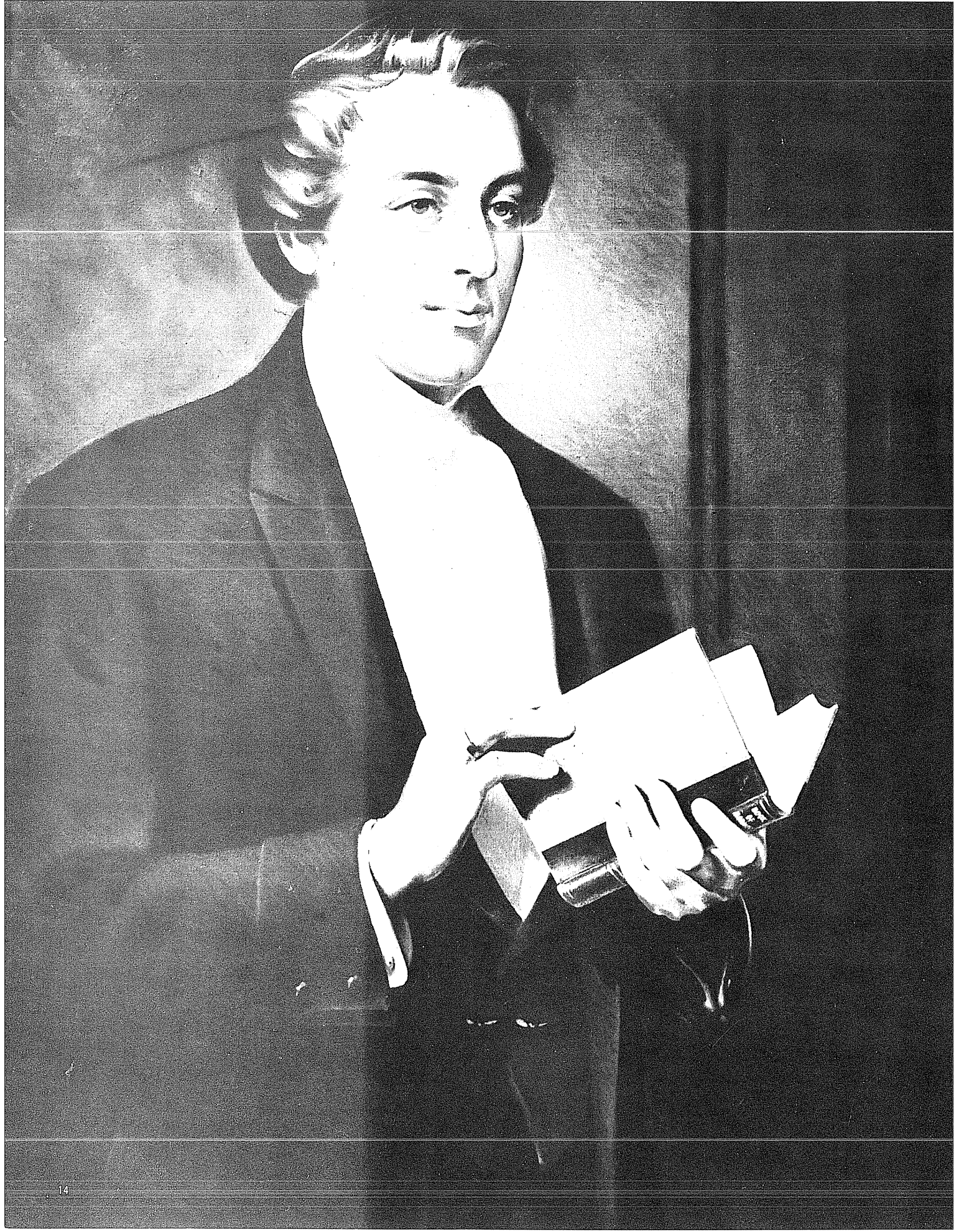
회복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굴의 정신과, 충성이 첫째이며 항상 자기를 향한 자신에 차고 두려움 없는 품성의 소유자가 필요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언자였다. “나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힘이나 얼굴에 두려움을 가져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제임스 알링톤 베틀에게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내가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두려워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⁸

또 한번은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인기가 있다거나 인기가 없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 남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의로운 원리를 고수하겠습니다”⁹

베틀에게 보낸 또 다른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온 세상은 수세기에 걸쳐 휘몰아 친 세찬 파도에도 굳건히 서 있는 대양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와도 같이 내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미덕의 성실한 친구가 되고 악을 대적하는 강인한 적이 되며...이 세대의 파도와 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¹⁰

요셉 스미스가 지나치게 자부심에만 차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점과 자기의 모든 성공을 주님께 돌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¹¹ 고 그는 성도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종이라”¹²

1. 요셉 스미스서 2: 25
2.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7월, 교회사(흔히 교회정사라고 불림) 5: 516
3. 다그라스 판사와의 대화, 1843년 1월 교회정사, 5: 215
4. 새로 도착한 영국 성도들에게 행한 말씀, 1843년 4월, 교회정사 5: 356
5.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월, 교회정사 5: 259
6.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4년 3월, 교회정사 6: 273
7.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0월, 교회정사 6: 58
8. 제임스 알링톤 베틀에게 보낸 서한, 1842년 9월, 교회정사 5: 157
9. 어셈블리 룸에서 행한 연설, 1844년 2월, 교회정사, 6: 223
10. 제임스 알링톤 베틀에게 보낸 서한, 1843년 11월, 교회정사 6: 78
11.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월, 교회정사 5: 259
12. 킹 폴렛에 관한 연설, 1844년 4월, 교회정사 6: 305



또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도 있다. “나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원과 지혜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¹³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십니다.”¹⁴

주님을 친구요 교사로 맞은 예언자는 영원한 지혜로 깨우침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도 그의 마음이 달성한 복음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허용이 되고 사람들이 준비된 상태로 임한다면, 나는 시현에서 왕국의 영광이 내게 나타내진 것보다 백배나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¹⁵

예언자는 “하늘의 학문과 지혜”¹⁶를 사랑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 성스러운 진리의 기초를 확립해 주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의 마음 속에 밀려 오는 시현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할 수 있는가를 나는 밤을 새우고 식음을 폐하면서 생각합니다.”¹⁷

진리를 추구하려는 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그가 화가 났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중대한 문제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지나쳐 버려질 때 나는 그러한 모든 진리를 낱알이 보고 가슴에 품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읍니다...”¹⁸

요셉 스미스가 사악한 자들의 모의에 짓밟힐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죄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개의치 않고 합법적인 절차로 집행된 재판을 기꺼이 받았지만 변호를 받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권리가 제약되는 일은 거부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악한 사람, 거짓된 전통, 외곡된 신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몇몇이 행사하며 자기가 택한 대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였다. 그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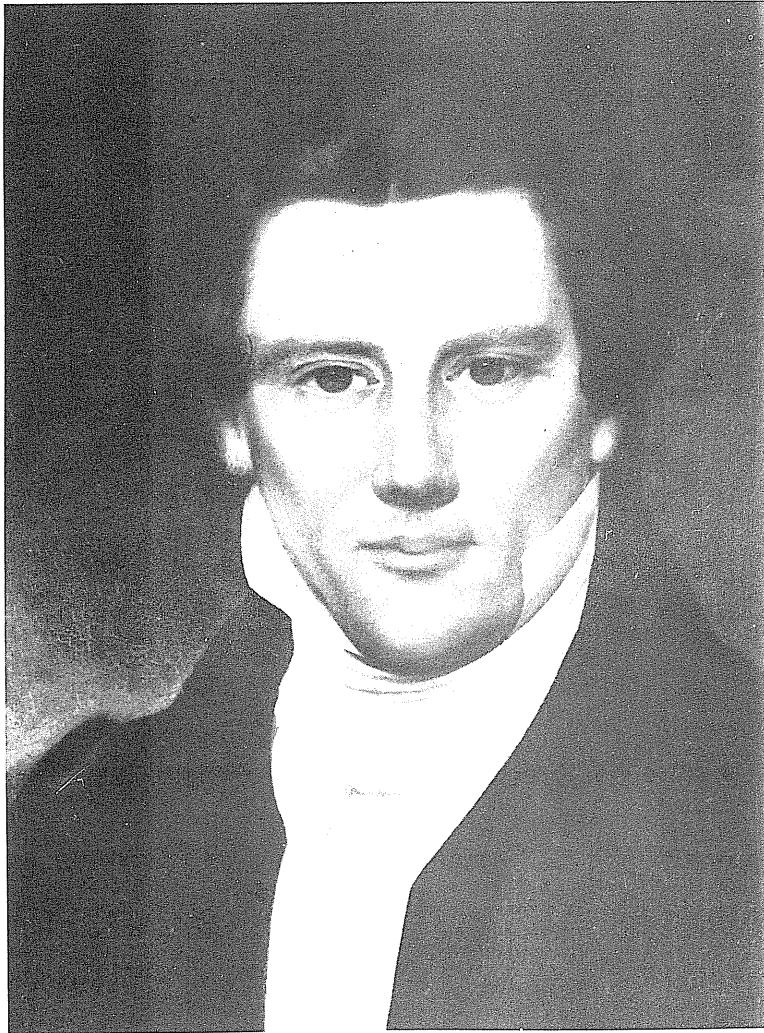
“나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안겨주려는 애착심에서 나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은 할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안아 주셨을 그 옛날부터 나의 영혼 속에 뿌리를 박았읍니다...”¹⁹

“나는 사교와 믿음의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구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²⁰

“나는 어떤 다른 종파의 신조도 믿을 수 없는데, 이는 그들 중에는 진리를 갖고 있는 곳도 있으나 내게 모두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조가 썩기를 막으며 ‘여기까지는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하니 이 점을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²¹

“나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미주리 사람) 우리의 권리를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²²

자유를 사랑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의 깊은 애국심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초상화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초상화 : 13 페이지의 그림은 데이비드 로저스가 그다. 14 페이지의 초상화는 에드워드 그리그웨어의 작품이다. 위의 초상화 워싱턴시의 국립 초상화 화랑에 걸려있다. 데이비드 로저스가 그린 아라그림은 1842년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려졌다. (교회사 5 : 164~5)

13. 십이사도에게 보낸 서한, 1840년 10월, 교회정사 4 : 230

14. “그런 마운틴 보이즈”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1월, 교회정사 6 : 93

15.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5월, 교회정사 5 : 402

16.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6월, 교회정사 5 : 423

17. 장례사, 1843년 4월, 교회정사 5 : 362

18.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4년 6월, 교회정사 6 : 477

19.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7월, 교회정사 5 : 496

20.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4월, 교회정사 5 : 340

21.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0월, 교회정사 6 : 57

22. 나부에서 행한 연설, 1843년 6월, 교회정사 5 : 473

일보다 더 큰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²³ 라고 그는 나부군단에게 말했다. 자신이 “애국자”²⁴ 입을 말한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미국의 국헌을 옹호하는 일에는 누구에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약한 자와 박해를 받는 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²⁵

이 말을 한 4개월 후에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피해를 입은 순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떤 힘이나 권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인류의 전반적인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국의 국헌과 법률을 수호함에 필요하다면 미덕과 의와 진리의 제단 위에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²⁶

예언자에게는 이토록 강철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벨베트와 같은 포근한 면도 있다. “종파분리주의 목사들은 내에 관해 비난하며 ‘왜 이처럼 허튼 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추종자를 모으고, 잃지를 않나?’ 하고 묻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사랑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선한 마음과 선한 손뿐입니다.”²⁷

“...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넓습니다.”²⁸ “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증오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²⁹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나오는 사랑의 깊이를 재어 보라.

“나는 성도들을 위해 시중들고 싶으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³⁰

“나는 학식이 많지는 않으나 어느 누구에게 못지 않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은 나의 느낌을 나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대천사의 언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을 다시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며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의 마음도 서글퍼 집니다.”³¹

“나는 그들(그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친구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지닐 것이며 나의 손은 그들을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³²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부드러워만 갑니다. 나는 언제나 잘못된 것은 기꺼이 버리고자 하니, 이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³³

예언자가 지닌 타인에 대한 사랑은 주님과 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 가는 영혼을 동정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낍니다...”³⁴고 그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말했다.

그의 일지에 적힌 다음 말들은 그의 특성을 잘 말해 준다. “...내가 훈훈한 느낌을 가지고 마음 속으로 아끼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열의를 가지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성스러운 교리입니다. 나는 우정과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미덕과 율법을 사랑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³⁵

하나님의 예언자는 인간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의 추종자보다는 그 자신의 말로써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행동할 때만 예언자입니다.”³⁶ 라고 요셉은 말했다.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놀라우리만치 솔직하였으며 자신의 약점을 향상시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솔직하게 고백하곤 했다. 다음의 연설문을 읽고 생각해 보라.

“나는 고대의 예언자나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점이 있음에도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야만 합니다...”³⁷

“나는 그들에게(성도들) 나도 사람이므로 온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나도 그들에게서 같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약점을 참아 준다면 나도 그들의 약점을 참게 됩니다...”³⁸

그러나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원래 나에게서 이러한 죄를 범할 성질은 결코 없었다”³⁹는 말로써도 알 수 있다. 지상에서 마지막 행한 그의 유명한 말은 항상 주님에게서 용서를 구한 겸손한 간청의 결과가 무엇이었나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⁴⁰

역경에 처해서 그가 보여준 태도 보다 그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잘 나타내 준 것은 없다. 그는 평생을 평화롭게 살아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당한 고초는 그의 영혼을 승화시켜 주었다.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크고 거친 바위들과도 같습니다. 내가 닦이고 세련될 수 있는 기회란 폭도나 신성 모독자, 부패한 남여의 사주를 받는 종교적인 외교집창이, 성직자, 법률가, 울지 못한 편집인, 편견을 가진 판사, 위증한 집행자들이 쫓는 가중된 힘이 나의 몸에 여기 저기 닿아 나의 모난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든 잘 갈아진 화살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며, 이때는 그들의 거짓 수단이 끝장이 나고 그들의 은익처가 파괴될 것이며, 그러는 동안 내가 사용하던 잘 닦이고 갈아진 화살도 무더기 되고 말 것입니다.”⁴¹

“홍분된 상태가 나의 생애를 지배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상태가 사라지면 나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⁴²라고 예언자는 말한 적이 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한 노력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며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교성 121 : 8, 122 : 9참조)

우리는 오늘 여기 저기에서 예언자의 놀라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성품이 매우 인상적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살아온 생애나 그가 선언한 메시지나 그가 발휘한 수많은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성품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데일러 형제는 워싱턴 대학 근교에 있는 시애틀(워싱턴) 신학원의 책임자이며 시애틀 노스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이다. 

23. 나부 군단에 행한 말씀, 1841년 7월, 교회정사 4 : 382

24. 제임스 알링톤 베넷에게 보낸 서한, 1842년 9월, 교회정사 5 : 159

25.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10월, 교회정사 6 : 56-57

26. 정치적인 모임에서 행한 연설, 1844년 2월 교회정사 6 : 210

27.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7월, 교회정사 5 : 498

28. 워싱턴텍커에게 보낸 서한, 1844년 6월, 교회정사 6 : 459

29. 킹 폴렛에 관한 연설, 1844년 4월, 교회정사 6 : 317

30. 에드워드 헨터에게 보낸 서한, 1842년 1월 교회정사 4 : 492

31. 장례사, 1843년 4월, 교회정사 5 : 362

32. 일지, 1842년 8월, 교회정사 5 : 109

33.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4년 5월, 교회정사, 6 : 412

34. 상호부조회에서 행한 연설, 1842년 6월 교회정사 5 : 24

35. 일지, 1242년 8월, 교회정사 5 : 108

36. 성도들과의 대화, 1843년 2월, 교회정사 5 : 265

37. 연설, 1843년 7월, 교회정사 5 : 516

38. 새로 도착한 성도들에게 주는 충고, 1842년 10월, 교회정사 5 : 181

39. 요셉 스미스서 2 : 26

40. 카메치 감옥으로 가면서 행한 말씀, 1844년 6월, 교회정사 6 : 555

41.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5월, 교회정사 5 : 401

42. 성도들에게 행한 연설, 1843년 5월, 교회정사 5 : 389

교회의 집회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연사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소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말일성도 시인들과 음악가들도 역시 이와 같은 정력을 가지고 새로운 찬송가와 성가, 새로운 독창곡과 칸타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회복된 복음을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찬송가가 가장 좋은 찬송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전에 사용하였던 것은 옛 친구와도 같이 느껴지고, 회원들이 오랜 동안 배워 익혀 온 노래 중에 좋은 것만 고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시 149:1) 또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이 42:10) 이 외에도 경전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찬송가도 당연히 오늘날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음악은 보다 현대와 관계를 깊게 하고 보다 현대 감각을 받아 들여 현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찬송가를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새로운 개정판을 내기에 충분한 새로운 곡이 쌓이게 될 때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곡만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찬송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찬송가는 새로운 곡 뿐 아니라 예전에 즐겨 부르던 곡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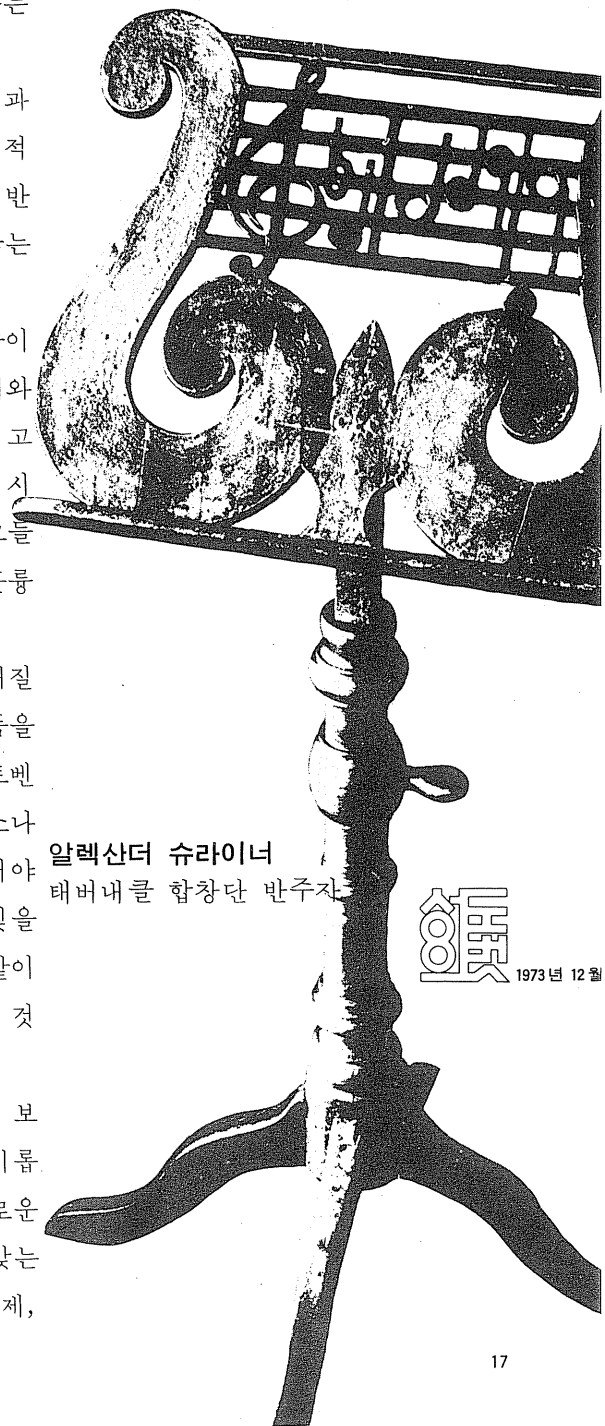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목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적인 시인과 음악가들의 재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곡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에는 우수한 재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시인은 교회와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많이 대하고 그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훌륭한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질에 결들여서 위대한 음악 작품을 접하여야 하며 모짜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의 아름다운 소나타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빛을 보다가 사라지는 유행 음악과 같이 일상적인 관용악구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보다 현대적이고 복잡해지고 흥미롭기 때문에 새로운 찬송은 새로운 주제, 보다 강한 주제, 때에 맞는 주제, 신앙을 고취시키는 주제,

말일성도 찬송가 작곡 작사를 위한 지침



알렉산더 슈라이너
태버내클 합창단 반주자

성도
의
빛

1973년 12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제로 작곡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능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에 이와 같은 주제를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로이 하며 그가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곡을 작곡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찬송가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동반하여 주는 것이 찬송의 곡입니다. 그러므로 가사 즉 찬송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제에 적합한 운율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곡가는 찬송의 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곡을 택하여 그 곡에 운율법을 맞추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 통하는 이스라엘”의 곡은 여러 다른 찬송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모든 찬송은 같은 곡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등 몇 가지 곡은 새로운 가사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있었던 곡에 새로운 가사를 지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가사에 맞추어 새로운 곡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말일에 회복된 복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가치있고 성스러운 말일성도 찬송가 중에서 앞에서 예로 든 곡 외에도 여러 곡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시입니다. 고

대 회랍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훌륭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에게 준 계시에서 주님은 “...의인의 기도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교성 25: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적합한 예로 다음과 같은 곡을 들 수 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리고 “오 높은 영광 보좌”

사도 바울도 찬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여러 종류의 찬송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구약 예언자들의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찬송곡을 분류하자면 5가지로 분류됩니다. 순수 찬송, 시편, 영가, 성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음 찬송이 그것입니다.

순수 찬송. 이상적인 찬송은 하나님께 바치는 성스러운 노래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중

요한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영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 영적인 가치는 모든 가치보다도 뛰어나습니다.

시편. 바울은 시편의 노래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시편은 서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이며 가장 고귀한 시입니다.

칼빈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찬송보다도 이 시편을 노래하기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그의 사명을 암시하여 주고는 있으나 직접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목자니”와 “찬양하라 네 주님을” 시편에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영가. 이 찬송은 예배드리는 자들의 영을 고취시키며 하나님께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에게 돌리는 노래이므로 영가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찬송이 그렇듯이 이 찬송도 주님 앞에 부릅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새롭게 잡시다” 그리고 “오늘 네 집 떠나 올 때” 등의 찬송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성가. 이것의 주요 특징은 곡의 위엄성을 나타내는 일률적인 리듬에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요새”는 이 부류에 속하는 찬송입니다.

복음 찬송. 복음 찬송이란 명칭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거의 복음을 말하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미국의 열성적인 신

양 부흥자들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싸움 끝나는 날까지” “아직 대낮동안 힘써 일하라”가 있습니다. 이 부류의 찬송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시적인 면에서나 음악적인 면에서 그리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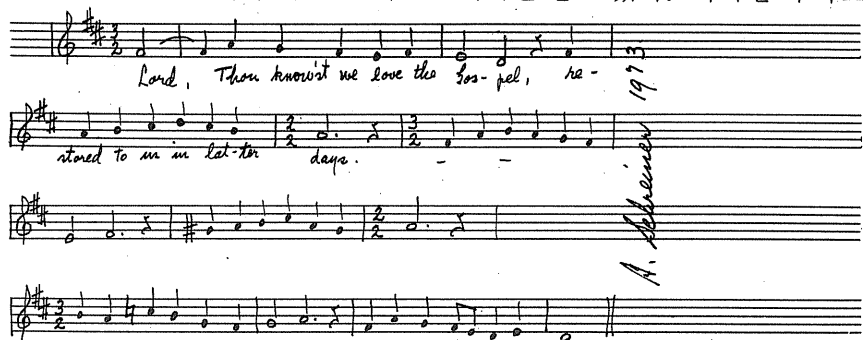
성공적인 찬송을 지으려면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강한 의미의 말을 첫머리에 갖고 와야 합니다. 강한 의미의 제목으로 첫절을 시작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절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대체적으로 3절 또는 4절로 되어 있다.)

찬송 중에는 각 절이 하나의 주제를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전을 따르는 찬송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첫절 시작은—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구주”—제목이 될뿐 아니라 전체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뒤에 따르는 각 절은 바퀴 중심에 연결된 바퀴살과 같이 이 중심 주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된 찬송은 어떤 절을 먼저 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처럼 그 내용이 각 절로 연결되어 있는 찬송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모든 절을 다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될 수 있으면 성도는 “오 높은 영광 보좌”의 모든 절을 다 부르라고 권고하신 이

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회복된 복음의 특별한 주제를 갖고 새로운 찬송을 짓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시인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주님은 그를 축복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감사히 여길 것이고, 주님의 사업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며, 새로이



침례받아 입교한 회원의 신앙은 강해 질 것입니다.

찬송의 주제가 될만한 특별한 주제 몇 가지를 제언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찬송을 보다 새롭고 훌륭하게 처리한다.
2.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이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다.
3. 젊은이나 노인이나를 막론하고 성스러운 물몬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
4.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란 복음의 회복을 기뻐하는 찬송이다. 이와 같은 찬송은 위엄성, 고결성 및 신앙 고취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우수해야 한다.
5. 교회의 사업과, 충실하게 말

은 바 의무를 완수한다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찬송이 필요하다.

6. 침례에 대한 새로운 찬송이 작사 또는 작곡되어, 어린이나 개종자들이 교회에 입교하는 특별한 성스러운 침례식을 음악을 통하여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러한 주제도

사용될 수 있다.

7. 교회에는 건축 양식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거대하고 거룩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다. 신전에 들어 가는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적에 가까이 감을 노래하는 찬송이 필요하다.

8.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놀랄 정도의 성공을 보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선교부에서는 상당 수 회원이 새로 침례를 받았다. 리하이의 후손인 이들에 대한 찬송을 지을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도 상당한 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있다. 전 세계의 새로운 성도에게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써 우정의 손길을 뻗칠 때 만민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9. 성찬식에 관한 찬송이 더 필요하다.

10. 효과적인 선교 사업에 맞는

새로운 찬송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종하는가? 어떠한 느낌을 느끼는가? 무엇때문에 기쁨을 얻는가?

찬송의 작곡 또는 작사를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내용에 대하여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요구, 우리의 희망과 공포,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찬송을 합창단은 기쁘게 부를 것입니다.

복음을 주제로 한 새로운 독창곡을 작곡 작사할 기회 또한 많습니다.

우리는 바하가 낭음조(레시타티브), 독창, 이중창, 합창을 포함하는 칸타타, 합창 등을 위하여 작곡한 칸타타를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노래와 즐거운 어린이들의 노래, 심지어는 오락 노래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을 높일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완성되면 작가는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걸작이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만드는 곡들은 모두 어떤 가치있는 작품을 숙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는 현대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현대인의 관심을 끌며,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새로운 찬송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한 멜로디는 많은

수라이너 형제는 1924년이래 계속 태버네를 합창단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찬송에서 볼 수 있는 멜로디와 약간 다릅니다. 많은 시인이 이 멜로디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가사를 연습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세기 전 천주교 찬송가 작가들은 거의 성서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찬송가로 삼았습니다. 루터교인들은 아름답고도 경건한 합창을 많이 작사 작곡하여 종교적으로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도 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우리의 회복된 교회는 초기에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찬송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는 이 세기에 위대한 공헌을 남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새로운 개정판을 내려면 적어도 신곡 100곡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개의 곡이 합당한 가치가 있는 곡으로 되기까지는 10번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반드시 훌륭한 시인이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찬송가 작사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묘한 시어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수없이 많이 불러워지고 그것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이로 하여금 영감을 일으키게 하여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지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은 시작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어야 합니다.

찬송가 작가는 유행되는 유형,

낭만적인 발라드를 배제하고 온전히 그의 정신을 가치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전자와 같은 가벼운 유형은 한두번은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곧 품위있는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의 가사는 그의 높은 내용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과 찬송가 작가는 물몬의 가치를 그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찬송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위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깊은 확신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찬송의 목적은 신앙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곡조를 넣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미화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원리를 사랑하고 따르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회중을 신앙과 형제애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 붙는 멜로디는 그 가운데 기쁨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줍니다(이 51:3 참조).

찬양의 찬송에 표현하는 영광, 아름다움, 권세, 위엄, 거룩함으로 약한 자나 강한 자, 가난한 자나 부자, 늙은 자나 어린 자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시다. ㉔

성탄절 이야기

(25페이지와 27페이지를 볼것)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
에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
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
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
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교회의
어린이에게 주는 성탄절 메시지

대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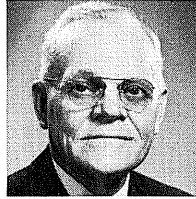
1973년 12월호



태너 부대관장



리 대관장



름니 부대관장

성탄절은 즐거운 때입니다. 전 세계의 소년 소녀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 성스러운 날을 맞아 축하하고 있으나 성탄절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유다 언덕 근처에서 태어난 아기를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빛을 밝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집, 나무, 길, 창 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성탄절이면 햇불을 든 노래하는 가족이 눈 덮인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산을 지나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 첫째 성탄절 밤에 하늘에는 빛이 나타났으며, 특별히 밝은 별

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를 내려 비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새로운 세계”에서도 하늘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았으며, 몰론경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밤을 환히 밝혀 주었습니다.

성탄절은 사방에서 노래가 들리는 때입니다. 첫째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길가나 대문에서 귀에 익은 성탄절 노래를 듣게 됩니다.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서도 우리는 성탄절과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노래하는 어린이의 영롱한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쁜 때입니다. 그 옛날의 성탄절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바쁜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자마자 급히 그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멕시코의 마



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첫 성탄절을 연극으로 재연해 봅니다. 한 아이가 마리아가 되고 다른 한 아이가 요셉이 됩니다. 그들은 마을의 집을 주막집으로 가정하고 방문합니다. 주막집 사람들은 모두가 이들을 외면하나 마침내 친절 한 한 집에서 그들에게 쉼 곳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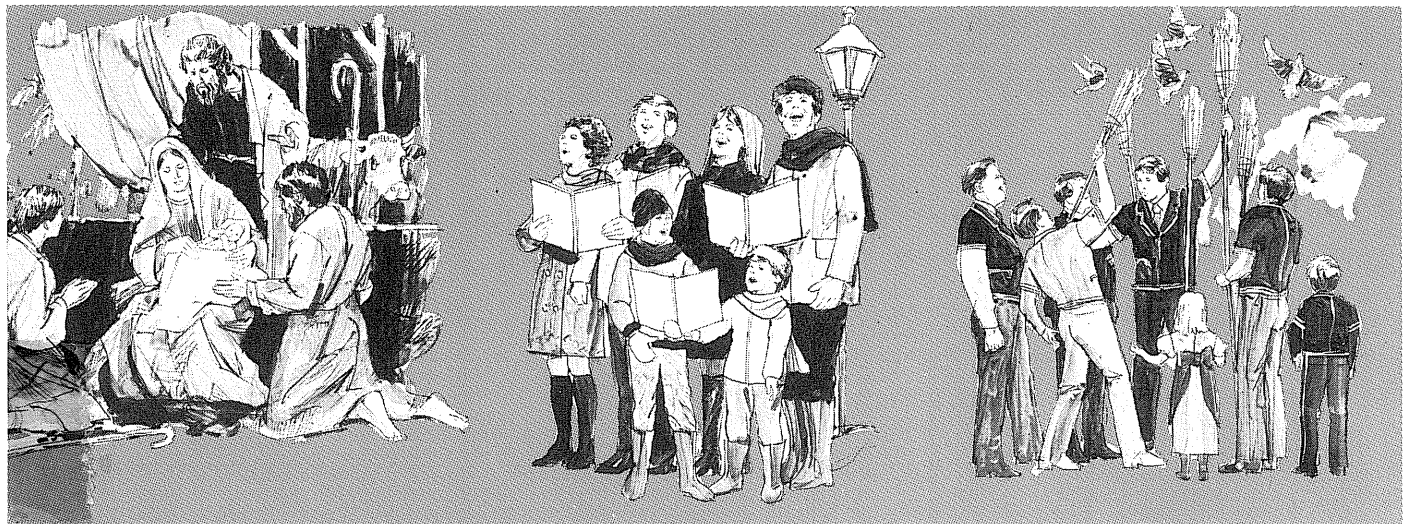
성탄절은 사랑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로 표시됩니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들에 장대를 박고 그 위에 곡식을 놓거나 광의 지붕에 곡식을 뿌려 새들이 먹게 합니다. 어디에 있건 사람들의 마음은 친구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성스러운 밤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그의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 가게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이는 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때를 맞이하여 성탄절의 불빛을 보며,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성탄절의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함께 자신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갖는 사랑과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갖는 사랑을 진심으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



요셉 형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 중의 하루가 12월에 있는데, 이 날은 12월 23일이며 1805년 이날에 우리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났습니다.

예언자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였으며 그들도 예언자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어린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어느 소년은 가족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농장을 떠나 커틀랜드를 향해 갈 때 예언자가 이 마차 저 마차를 두루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하곤 했던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언자를 “요셉 형제”라고 불렀으며 그는 언제나 그들을 보며 미소로써 답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언자가 자기를 살해하려는 악한을 피해 어린이들이 놀고 있던 집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예언자의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으며, 그 중 일곱살난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요셉 형제가 안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몇분 후에 예언자는 침실 문을 열고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의 무사함을 기도하는 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며,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 중 한 아이가 “난 요셉 형제가 안전하리라고 믿어.”하며 말하는 소리를 듣자 볼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때 예언자는 밤새도록 그를 지키기 위해 와 있던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집에 가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그래서 그날 밤은 안전하게 잘 수 있음을 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안전한 밤을 보냈습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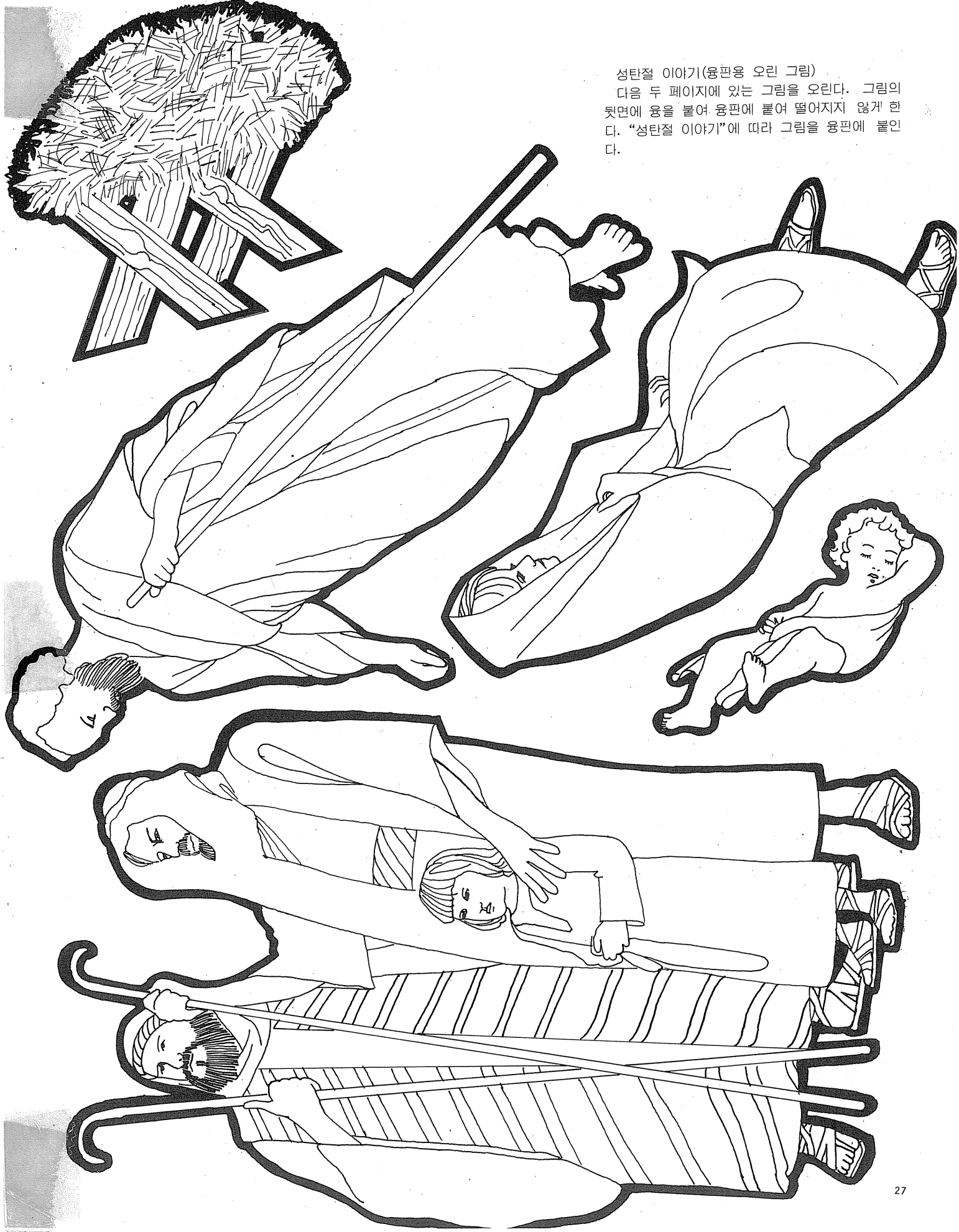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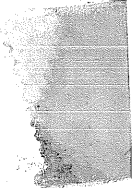
1973년 12월호





성탄절 이야기(융판용 오린 그림)
다음 두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오린다. 그림의
뒷면에 융을 붙여 융판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성탄절 이야기"에 따라 그림을 융판에 붙인
다.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화강암산 기록 보관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발발하는 폭동중이나 분노심에 가득찬 사람이 기록 보관소에 개술린 폭탄 하나만 던져 넣는다면 어느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고귀한 기록이 파괴됩니다. 태풍이 해안 지역을 휩쓸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전기의 부주의로 일어난 갑작스런 화재로 수백년동안 조심스럽게 보관해 왔던 기록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술품이나 자연미등을 아무런 목적없이 무차별 파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입하여 고귀한 기록을 쓰레기처럼 쌓아 놓고 파괴할 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선동가들이 일으키는 폭동이나 반란은 도서관의 귀중한 보고를 광장에 내다가 불을 지르는 행위를 초래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인간이 존속하는 한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 날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귀중한 기록, 원고, 역사, 전기, 그 외에 계보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결책은 오랫동안 인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원소의 파괴, 시간의 파괴, 인간의 파괴로부터 이 기록을 보호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는가?

세계 각처에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록의 사본이 현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계보 협회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활발하고 포괄적인 계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973년 12월호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은 수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보 사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기사들은 세계 전역에서 매일 기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양도 증서, 증서, 유언 검인 기록, 혼인 기록, 매장 기록, 교구 기록, 그 외에 계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기록등이 촬영됩니다. 현재까지 마이크로필름 75만권이 보관되고 있으며 매달 수천권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필름화된 기록은 3백 페이지짜리 책 3백만권이상에 해당됩니다.

이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려면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지구의 변동이나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상적인 보관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대륙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험준한 록키 산맥 위에 이러한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피트의 견고한 화강암 밑에, 계곡으로부터 높이 위치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이곳에 교회는 계보 보관소를 건축하였습니다. 안전한 이 보관소에는 현재 고귀하고 중요한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산 기록 동굴 보관소에서는 다른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굴의 실험실과 사무실 위로는 91미터의 견고한 화강암이 있으며 6개의 커다란 동굴 보관실 위에는 213미터의 화강암이 있습니다. 보관소에는 출입 터널 세개가 매우 견고한 상자 모양의 동굴 입구에 잇대어 있습니다. 중앙 터널에 있는 큰 문의 무게는 14톤이 넘으며 동쪽과 서쪽 터널의 좁은 문도 각각 9톤이 넘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은 교회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조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93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기록 보관인으로서 해마다 활발하여 지며, 시, 군, 주의 기록 보관소는 이 사업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청탁을 받아, 또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계보 협회는 시, 군, 주의 기록 보관소의 기록을 무료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합니다. 마이크로필름화된 기록의 포지티브 사본은 일반적으로 시, 군, 주의 기록 보관소에 증여합니다.

수 세기를 통하여 기록된 세계의 전 계보 기록을 모두 모아 천재지변이나 인간의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교회가 바라는 주요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기록 보관소에서 매일 카메라의 샷터가 눌릴 때마다 이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촬영하여 만든 기록을 화강암산 위에 값진 보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데오돌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에녹성의 사 람들처럼 주를 맞으리 공중으로 올리워 겁니까?”



대담자 스페리 장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말해서 ‘예’입니다. 경전 에 나온 몇가지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교리와 성약의 말씀에 주의하십 시오.

“땅 위에 있어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주를 맞 으리 공중으로 올리워 가리라”(교리와 성약 88 : 96)

교리와 성약 27편 18절에 있는 이 구절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또 다른 경전에서 보다 명확하게 바울 사도는 구세주의 재림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 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 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14 : 16- 17)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들려 올리워”진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교회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된 특권 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의 영광의 상속자들은 “장 자의 교회로 이끌려 가 구름 속으로 영접받게 되는 성도들 과 함께 모이지 아니할 자”입니다. (교성 76 : 102) 그러므 로 교회 회원 중 많은 수의 회원이 들리우지 못할 것입니 다. 이는 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

다. 다음의 성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 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와서 진리를 받아 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 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 (교리와 성약 45 : 56-57)

“... 인자가 오는 날에...

“그 시각까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가 있으 리니, 그 시각에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리라. 그 날에 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악인을 뽑아 내어 꺼지 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교리와 성약 63 : 53-54)

열 처녀의 비유(마태복음 25장)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 이, 교회 명부에 기록된 많은 회원들은 신량이 오실 때 기 림이 없는(기림이 조금 밖에 없는) 등잔을 들 것이며 이들 은 들리움을 받아 그를 만날만한 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교회에 속한 자(교성 76 : 54)들은 “주께서 지상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 하늘의 구름을 타 고 오실 때에 주께서 데려올 자니라”(교성 76 : 63)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영적 이고 의로운 회원만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여호와의 장 자의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생으로 인봉받아 장자의 교회 회원이 된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많으며, 이들이 계속 신앙을 지킬진대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회원에게 그를 영 접하기 위하여 들리움을 받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점 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圖

시드니 비 스페리
브리검 영 대학
구약 언어와 문학
명예 교수

시장 가격

매튜 카울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최 근 타히티를 방문하였을 때는 마침 진주 조개 잡이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후렌치 오세아니아 군도에서 조개 잡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 물속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저 27미터 깊이에서 이분 사십초 동안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 진주 조개를 따 오는데, 이 진주 조개로 다음 철이 올 때까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 젊은 말일성도는 해안가에다 그의 진주 조개를 두 무더기로 나누어 쌓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청년의 진주 조개를 사기로 미리 계약했던 상인이 와서는 작은 무더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지요?” “아닙니다. 제 것은 아닙니다.”

상인은 “이건 어디서 난 거요?”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따 왔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거 아니요?”

청년은 “하나님의 진주 조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판단 말ियो?”

“제가 팝니다.”

“중소, 그럼 내가 사리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계약 가격으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진주 조개에는 시장 가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가 계약한 뒤에 시장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주 조개는 시장 가격에 팔았으며 자신의 조개는 계약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만일 가격이 내려갔었다라면 어떻게 했었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진주 조개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 때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8년 9월호 제51권 756페이지)

매튜 카울리 장로는 1897년 8월 2일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에서 태어났다. 겨우 17세 때 그는 부름을 받아 뉴질랜드에서 선교사업을 하였다. 1938년 카울리 장로는 뉴질랜드 선교부를 관리하였다.

1945년 10월 11일 그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로부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그는 3년 동안 태평양 군도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언어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봉사했던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1953년 임종을 맞을 때까지 그는 태평양 군도, 동양, 그 외의 많은 선교부와 스테이크를 방문하였다. ■



신권 소유자가 받는 새로운 봉사와 책임의 부름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라

해럴드 비리 대관장

고대 상형문자가 발굴되어 인류가 가지고 있던 구구한 의문을 해결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상형문자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1931년 10월 4일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부대관장님께서 바로 이 연단에서 하셨던 말씀이 회상되었습니다. 내가 그때의 말씀을 회상한 이유는-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대회에서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 “돌에 새겨진 성경”이라는 최근에 발견된 발행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적이 기자 또는 회람의 피라미트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특징, 건축 양식, 상징, 또는 회람의 건축 양식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피라미트의 크기, 상징, 기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피라미트에서 기록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1928년은 앞으로 위대한 시련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이며 이 시기는 1936년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시기는



주께서 강림하시고 인류 가운데 평화와 행복과 안녕이 이루어 지는 시대와 일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들려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물론 모든 선교 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우리의 장로들도 이 책을 사용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께 세상의 어떠한 평판에도 굴하지 말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결론이 그릇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교회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오

지도 않으며 그렇게 받아들여 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매우 큰 의미를 준 듯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제 제이 골든 킴블 형제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는 꿈이란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현실화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세계 대전이 종식된 직후 이들 피라미트 연구 학자들은 이 책을 발행하면서, 그들의 측정과 통계에 따라서 세계는 1928년을 기점으로 하여 인류에게 시련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시기를 맞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져야 하며, 이러한 시기는 1936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이 꿈의 적어도 일부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0년대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지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용히 주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때가 오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을 정리하고 빛을 청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저서를 통하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말씀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며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대회 보고 1931년 10월 87-94페이지)

나는 위대한 신권의 소유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머릿말이나 광고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교회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의 모범 회원인양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각없는 저서를 출간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논리와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며, 이 인용구가 교회 회원들에게 팔고자 하는 이 책을 보증하는 전서인 것처럼 꾸며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하여 훌륭한 회원임을 자처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사리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여 대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참석토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아주 중요한 대회의 분반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우기 계획적인 사람은 교회 집회, 노년의 모임, 장로 정원회, 성찬식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어 그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기회를 찾는 이와 같은 술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분명한 판단력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려 내어야 합니다.

신권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늘 저녁에 여러번 언급되었습니다.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에드워드 패트리지에게 주어진 짧은 계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도다. 보라 나의 종 에드워드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복이 있다. 네 죄는 사함받았고 나팔 소리같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의 손을 빌어 나의 손을 네 머리에 얹으리니,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성신께서 네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한 이 부르심과 계명을 네게 주리니

“이 부르심과 계명을 받들어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요셉 스미스 이 세 앞으로 오는 자는 모두 성직에 안수 성임되어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나니, 곧 성실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받드는 자는 모두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직에 임명되어 파송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고로 네 허리띠를 풀라 매라. 내가 나의 신전에 속히 오리라…”(교리와 성약 36:1-2, 4-5, 7-8)

나는 특히 이 중에서 한 구절을 들어 신권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의 손을 빌어 나의 손을 네[에드워드 패트리지] 머리에 얹으리니,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성신께서 네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며칠전 나는 집사로 성임될 수 있는 연령의 유년단 그룹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집사가 되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사의 의무는 성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사의 의무를 설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찬을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사가 성찬을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된 빵과 물의 상징물을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빵과 물이 상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리라는 성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집사는 상징물을 전달하며 주님을 대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는 회원에게 이 상징물을 전달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교사에게 그의 의무를 질문한다면 대부분 “뭘, 가정 복음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주님을 대표하여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고, 각 회원이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무를 생각해 봅시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교성 20 : 46-47) 제사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며 주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집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신권이란 인간이, 집사가, 교사가, 제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신권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더스톤 감독과 같이 되고자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그

들은 항상 신권을 가장 성실하게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모양을 단정하게 손질할 것이며 신권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옷차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원이거나 다른 어느 곳에 있을 때 병자 축복과 같은 의식을 집행해야 할 때는 옷을 단정히 갈아 입고 가장 훌륭한 몸차림을 할 때까지 의식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의 앞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로의 신권을 가진 사람중에서도 장로로서, 혹은 칠십인으로서, 혹은 고등 평의원으로서 의식을 집행할 때 그들이 축복하려는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빌어 주님이 손을 얹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가지 이유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성신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절실히 느껴서 젊은 사람들에게 신권의 참다운 의미와 신권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참 뜻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교회는 회복된 신권을 가진 가장 훌륭한 조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대회 모임에서 여러분은 성 교육, 호색 문학 등과 같은 세계를 휘도는 위험한 시대조류로 눈을 돌려 보았습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

러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면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때야 일어날 수가 없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강력한 방어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봉사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나태하여 이러한 책임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번 인용한 적이 있고 오늘 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가장으로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소홀히 하셔서 안됩니다. 자녀를 소홀히 하셔서 안됩니다. 자녀를 여러분의 주위로 끌어 오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정의 힘과 결속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킬진대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 힘으로나 영향력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소문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의롭고 순결하며 고귀하고 참된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협조자로 삼아 여러분의 가장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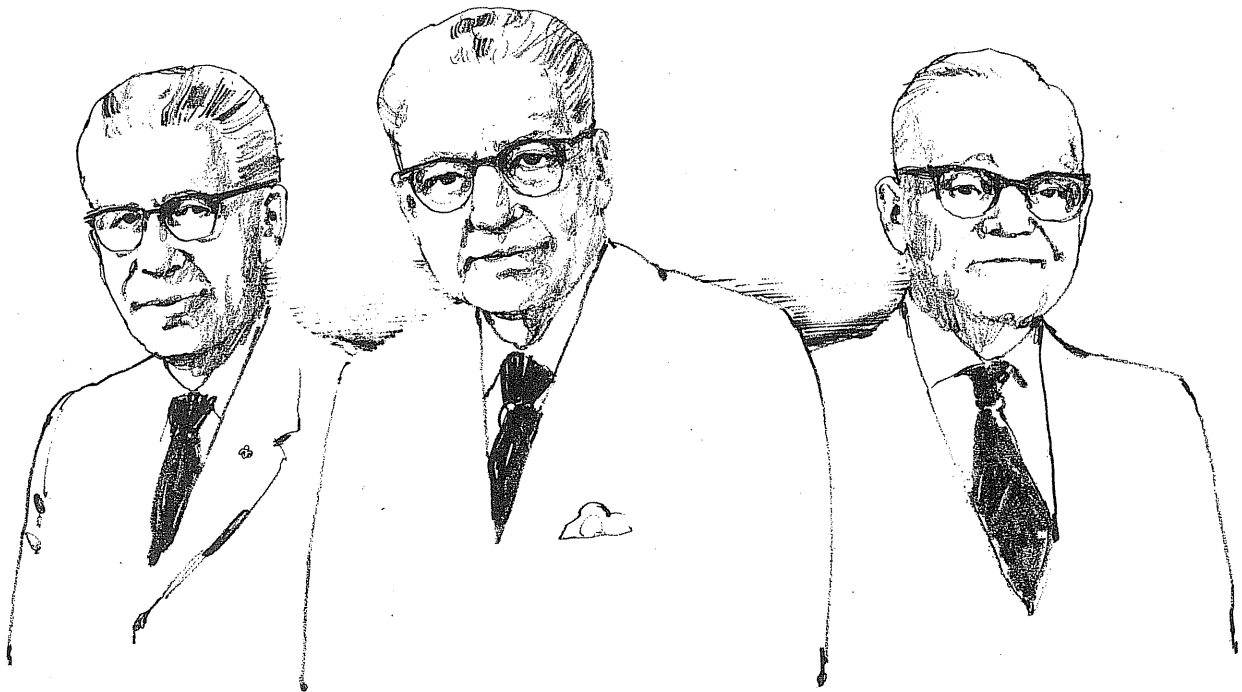
있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회시에 나는 한 학생회장으로부터 온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회장은 교정과 그가 움직이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

년입니다. 그의 편지 내용을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저의 학교에서 하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족의 힘과 결속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일성도 학생들은 모두 대관장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전 세계를 통하여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말일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따릅니다. 말을 바꾸어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꺼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저서를 통하여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부대관장

그러므로 이것은 무장을 하라는 부름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장을 합니까? 오늘날과 같은 불안의 시기, 어느 누군가가 말하였듯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듯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의 세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무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처하고 있는 새로운 사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청소년들


의 조직을 통하여 신권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에게 신권이 보호하는 영향력을 뻗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세대로 키우려하는 우리의 노력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모든 것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드렸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여, 비판을 금하고, 비난으로 언성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힘이며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척추가 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이 저녁에 나의 간증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賀新正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존당의 만복을 빕니다.

성도의 벗 올림

신권 소유자의 책임은 복음의 원리를 교수하는 것이다.

신권의 책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나는 때때로 우리가 진실로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시는 롬니 부대관장님은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고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유의 사항 몇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신권을 성실히 이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직책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신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행할 수 있는 특권과 위대한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책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리가 신권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려는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야구와 축구를 하십시오. 정구를 즐기십시오. 하고 싶은 운동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 이상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은 항상 가족이 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장은 그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

다. 현세에서는 물론 영원한 가족으로의 행복을 누리려면 가족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영향력있는 교훈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며 자녀들의 생활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며 그가 소유한 신권을 존중한다면 걱정할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녀와 어머니는 어떠한 해야 하는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권 소유자에게 말하는 것이며 신권 소유자들의 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십시오.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고, 우리가 여

기에 온 목적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가장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들에게도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과 가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맥케이 자매님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의 남편은 가정 외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예의바르고, 정중하며,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모든 면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충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훈이 될 만한 예로서 한 청년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신전에 가야 하는 중요성과 신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서 주님의 집에 들어 가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할 때면 그들이 얻게 될 경험과 신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신전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신전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 한 쌍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이 그곳에 참석할 수 있었던 커다란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언

다우먼트를 받기 위하여 신전에 갈 수 있는 때를 거의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신전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는 마치 직접 주님께 말

정직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신권을 성실히 이행하셨으며 우리도 그렇게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머니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농장 일이 바쁜데도 우리를 데리고 사냥이나 낚시를 가셨습니다. 농장 일을 멈추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절대로 가지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집

“우리가 소년들에게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하고 나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씀하시는데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정직하시고 훌륭하셨습니다. 내게 좀더 시간이 있다면 내가 겪었던 경험을 빌어 나의 아버지가 그의 동료들에

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나도 너의 아버지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하고 함께 다니면 참 좋을거야”라고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형제들은—네 명이었습니다—다른 어느 사람 보다 아버지

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되시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자녀와 가까이 하셔서 그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신임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찌기 또는 저녁에 나를 부르셔서 그날 할 일과 계획을 말씀하시고는 나의 의견을 물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는 그럴 때마다 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은 내게 대한 확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며 그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느날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우리 집에 있는 고용인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 주고 있다. 난 너를 완전히 믿고 있다. 너는 하루의 일을 완수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과 감사의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되는 것보다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착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실지로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낙담시키고 유혹하며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페더스톤 장로께서 언짢게 생각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족이 인정도 받았고 아는 사람도 많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온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 입었을 때 그의 아들 조가 다가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곳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는 윗층으로 올라 가서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 오니까 그의 부인이 “오늘 저녁에는 외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오. 조가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다는군. 그래서 옷을 갈아 입었소. 신권을 존중해야지. 또 조에 대한 나의 관심을 그에게 보이고 싶소. 그러면 그 애는 신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부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통하여 주님을 대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남편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을 포함하여 스테이크 와드의 역원과 감독들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은 그의 보좌와 함께 아론 신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많이 이야기되었으나 나는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름을 알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요셉 스미스 2서 17절 참조) 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신권 소유자로서 의식을 집행할 때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그 기억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나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뛰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가지고 의식을 집행할 때는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감독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신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히 여기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감독으로 있었을 때 나의 와드에는 장로로 성임받은 나이에 이른 형제가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명만 추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저는 합당치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일로 마음이 상했으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추천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씨가 내게 찾아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의 친구 다섯이 모두 앞으로 가는데 이 애만을 뒤로 붙들어 놓으시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는 이 청년도 앞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독님은 이 아이를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권이란 우리가 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쟁반에서 신권을 꺼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과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는 장로로 성임될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는 추천받지 못하였습니다. 몇년 전 템플 스캐어의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연차 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내게 다가와서는 태너 부대관장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지요. 제가 바로 부대관장님께서 장로 성임에 추천을 안해주셨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의 일을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감독으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합당치 못하였는데도 저를 장로로 추천하셨다면 아마 저는 신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야 합당한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감독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얻어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권의 참된 의의를 인식하고 감사하여져야 하며 그것을 얻기에 앞서서 합당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접견을 통하여 그들이 신권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권 승진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교사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 그들이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여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와드의 아버지로서 와드의 제반 사무를 지시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장래에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도자가 되고 언젠가는 이 좌석에 앉을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 주는 커다란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이 책임있는 직책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께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직책에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이며, 우리가 이를 존중하고 어디에 부름을 받거나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판사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랑과 확신과 진심으로 도와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범법자를 대하여야

하며 책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친절을 가지고 범법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곧 친절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범법을 관대히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부정 행위가 관명되었을 때 여러분의 의무는 그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범법 사건을 조사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큰 범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전과 지침서를 읽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이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기는 어느 누구도 징계를 하거나 회원 자격 정지를 내렸거나 파문을 시킨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릇된 태도를 가졌으며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범법하거나 잘못을 범한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하라”(교성 20:80)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더우기 범법 행위를 덮어 주려는 감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죄를 짊어져야 하며,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맛보려 하거나 찬성한다면 그 사람도 죄를 짊어져야 합

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업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권리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비행과 타락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78페이지)

교회가 다루는 범죄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전 불법 성행위, 간음, 동성 연애, 낙태 등의 도덕적인 범죄, 폭주, 강도, 사기, 절도 또는 살인 등의 도덕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 배도, 사회의 법칙과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와 고의적인 불복종,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학대함, 복혼제를 옹호 또는 실시, 기타 국법이나 교회의 질서에 대한 비기독교인다운 범법 행위.

범법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도움고자 하는 열망과 합당한 징계로 정당하게 처분받은 범법자는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발전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진대 그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이 그를 도와 주려는 것같이 주님은 여러분과 회개한 범법자 모두를 축복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소년과 청년-특히 청년들에게 몇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녁에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전 축복, 선교사의 부름, 기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축복등 신권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십시오. 여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신권 소유자라면 청년이나 장년이나를 막론하고 신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청년은 일생동안 여성의 덕을 보호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우리의 소년들이
신권 의식을 이행할 때는
그들이 주님을
대표한 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를 대표하기에 합당하도록 복장을
갖추고 겸손하며 경건하게
준비된 상태로 임해야
합니다.

여성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덕을 잃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과 외출할 때는 그가 모든 면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므로 안전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도덕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그들이 범법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이 신권을 존중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러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신임도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존경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감독, 지부장, 스테이크 부장, 대관장, 주님을 바라 보고 “나는 나의 신권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심각한 범법에 빠진 청년은 그가 회개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한 신전 추천을 신청할 수 없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수 없으며 신권 승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합당치 못하고, 헌신적이지 아니며, 범법을 행하여, 불명예로 해임되어 집으로 돌아 오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파문된 선교사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실망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동반자에게 막대한 실망을 줍니다. 선교 지역으로 오기 전이거나 와 있는 동안에 범법한 선교사를 다루어야 하고 때로는 고향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일은 선교부장의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이는 그의 부모를 실망시키고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그와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모욕이며 선교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세 가지 규칙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사랑하는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고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부여하는 의식에서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성약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 할진대 “성령으로 기록히 되어 오미 새롭게” 되겠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고 성약하셨습니다. (교성 84 : 33-38참조)

그러나 이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성 84 : 41)

주님께서는 이 성약을 주신 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할 것



입이라.”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열망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도입니다.

경전은 주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엘마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구원도 허가하시며 죽음도 허락하심을 내가 압이다” (엘마서 29 : 4)

예수님은 이 원칙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사람들을 당신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이를 원하였으므로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머물러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하리라” (교리와 성약 7 : 1-3)

말일의 경륜의 시기가 시작될 때 주님은 예언자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 (교성 4 : 3)

이개월 후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리라...” (교성 6 : 8)

우리가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교리와 성약 18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외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자가 또 있나니,

“곧 열 두 사람이라. 열 둘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이름을 받들리라. 이 열 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 원할 자니라.”

“만일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이름을 받들기 원하면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느니라.”

“보라, 너희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여,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말한 바를 완수하고자 원하는 자 열 둘을 찾아 내라”(교리와 성약 18 : 26-28,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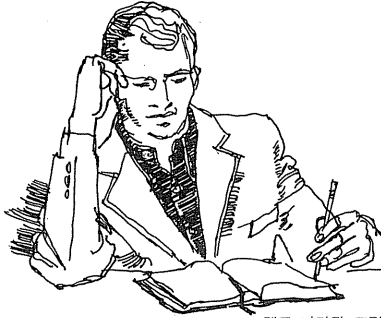
이들이 원하는 바란 직책에 부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에서 낙심한 선교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려고 애쓰던 때가 기억납니다. 나는 마침내 그에게 “형제님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 있지요. 저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성임되기를 원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열망은 의로운 열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리 사욕적인 야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모든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열망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직책을 얻었다는 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그가 부름을 받은 직책에서 얼마나 그의 의무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면 자격을 갖춘 제사를 거의 찾



테드 나기타 그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 니파이서 32 : 3

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그의 의무와 부름과 직위를 이행하고 성신의 인도로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는 대관장단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누릴 것이며, 교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테저렛 출판사 1961] 112페이지)

실현될 수 있는 열망이란 막연한 바람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열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줄 수 있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므로 그것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주님은 그의 제명의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제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이라.”(교성 1 : 37)

우리는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 : 17)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칙을 모르고서는 이 임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존 휘트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경전을 연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너희 시간을 바치라...”(교성 26 : 1)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리는 지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니, 이 일을 너희 가슴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 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성 43 : 34)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물몬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상고하라, 명상하라, 또는 생각하라 등의 낱말에 유의하게 됩니다.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하다, 꼼꼼히 생각하다”로 풀이 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라.”(모로 10:3)

예수님은 니파이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연약한지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라 너희에게 지금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할 줄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여...”(니파이삼서 17:2-3)

생각하라, 명상하라 또는 상고하라는 말은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는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니파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친께서 보신 것을 심히 알기 원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에 이끌려...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더니”(니파이일서 11:1)

그 후에 주님의 영은 니파이에게 시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예언자 아버지의 말을 믿었으며 심히 알고자 원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08

년 10월 3일 나는 내 방에 앉아서 경전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그 때 특별히 읽었던 성구는 예수님이 땅 속에 묻히셨을 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베전 3:19) 하셨다고 기록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기록된 이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며, 작고 큰 죽은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고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 가운데 행해지는 선교 사업에 관한 시현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 472페이지)

마음에 열망을 가지는 것,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기는 하나 여기에 기도가 없다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구세주께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접촉 반응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태초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며, 후에 천사를 보내어 “회개하여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전하셨습니다.

(모세서 5:5, 8)

예수님은 니파이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

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18-19, 21)

이 경문의 시기에 아직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주님은 예언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5)

주님은 제사들에게 이같이 지시하셨습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느니라.”(교성 20:47, 51) 미주리주 잭슨군을 세우려 간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님은 이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교성 68:33)

마침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93:49)

결론적으로 니파이의 권고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



테드 니기타 그림

“기도는 구세주께로 가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접촉 반응제입니다”

회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흑암에 이끌려가 멸망당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

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 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

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네게 성결케 하시리로다.”(니파이이서 32:1, 3-4 8-9)

주님이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함으로써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얻게 하시고, 이로써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㉞

≡ 시온의 젊은이들에게 ≡

최 욱 환
서울 스테이크 제2 보좌

저물어 가는 이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몇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지상에 참된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아세아 대륙에 첫 스테이크를 서울에 세우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세아인은 우리의 봉사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추수를 한 알 곡식같이 단단히 영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이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맥케이 전 대관장님께서 특히 교회의 청소년에게 전하신 말씀이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일과를 갖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전혀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생활의 표준이나 가치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친구로 맞다면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나쁜 버릇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누구」라는 주체의식이 뚜렷해야 했고 천박하고 어리석음을 누르고 고결하고 웅망스러운 자아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표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부모나 친구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로 인하여 응답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 16)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는 젊은이로 성장해야겠습니다. 수년 전 쉴트레이크시와 옥든시의 여학생을 위한 대회가 태버나클에서 열렸고 이자리에서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갖는 재미로 인하여 슬픔이나 뉘우침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민감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배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곧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배웁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배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젊은이들은 주로 텔레비전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배운 단어를 검사하였더니 6살부터 12살 까지의 어린이들이 배운 단어는 맥주 회사 광고 15개, 담배 광고 13개가 들어 있었답니다.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어린이나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일 성도 젊은이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기타 값있는 탐구에서 보여준 성공에 관해서 듣거나 읽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임을 믿으며(교성 93: 36)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를 볼 때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젊은이가 정규 신권회와 보조 조직의 프로그램은 물론 씨미나리와 신학원에도 많이 등록하여 이용한다는 사실을 볼 때 만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형제 자매가 영감을 받아 쓴 공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보낸 헌신적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는 누구든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이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 집회에서, 이야기 부탁을 받아 들이므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훈련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책에서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교성 88: 118참조) 독서는 더할 나위 없는 학문의 원천이며 우리가 읽는 것이 곧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임에 비추어 읽을 것을

선택할 때에는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일은 많은 법입니다. 청소년기는 학문을 닦는 데에는 최적기입니다.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준비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해야할 때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면 준비할 시간입니다. 만족한 여생을 원한다면 이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대학이나 실업 전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기술 한 가지씩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젊은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구 한국말에 목숨을 바쳐 충절을 보여준 민 충정 공(민영환)의 글 가운데 「持心恒若 夜聞雷, 求学切於 春望雨」란 글을 썼습니다. “마음 가짐은 항상 우리를 들음과 같이 하고 배움을 구함은 봄비를 기다림과 같이 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혹에서 벗어 나는 용기있는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리차드 엘 이반스 사도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표준, 법, 생의 인내, 권고, 계명,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게 안전하며 유덕한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의 한계를 밝히는 선을 그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일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화평과 자존심은 덧없는 쾌락과 안목이 좁은 방종과 위험하고 비천한 것을 추구하는 모험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절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수신 주소를 밝혀둔다.’ 유혹이 당신을 따라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면 관심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작가 잭 런던은 “나는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겠다.”고 한 적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너희가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 : 35~36)